

일본 합성수지 생산호조 지속

5월중 PP·HDPE 등 큰폭 증가… 수출도 66~103% 늘려

일본의 합성수지 생산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가 최근 집계한 5월의 주요 화학제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4대수지 생산은 정기보수 등으로 일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PP 등은 계속 두자리수 신장을 나타냈다.

일본의 4대수지 생산·출하실적(1995.5)
(단위: 1000M/T, %)

구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LDPE	149.8	▽1	116.4	4	22.5	66
HDPE	106.5	10	78.9	5	20.2	126
PP	210.5	12	178.8	10	21.9	103
PS	110.7	▽2	82.0	4	18.0	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임.

수지별로는 LDPE가 14만98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 감소했으나 출하는 내수부문이 4% 증가, 수출이 66%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HDPE은 생산이 10만6500톤에 달하고 출하베이스로는 내수가 5% 증가, 수출이 126% 증가했다. 미국기업들이 아시아시장에서 오랜만에 오퍼하는 등의 움직임도 일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P의 생산은 21만500톤으로 4사의 정기보수가 겹쳤으나 증가세는 유지했다. 출하는 내수가 10% 증가하여 6개월연

속 두자리수 증가했으며 수출도 103% 증가했다.

PS생산은 11만700톤에 달했고, 출하베이스로도 내수부문이 4%, 수출이 6% 증가했다. 에틸렌 생산은 59만4100톤으로 14.3% 증가했다.

<화학저널 1995/7/10>